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6호 [주제 제2578호] 주제106(2017)년 10월 3일 (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치자

백두전구에 라오르는 총공격전의 불길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성과 계속 확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수천㎡의 피장작업을 땀겨같이

자기 단위가 맡은 10여개 대상에 대한 외부형성공사를 끝낸 인민보안성원들의 전투원들이 수천㎡에 달하는 여러 역사의 벽체미장공사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려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백두대지에서는 자력갱생대진군의 힘찬 발구름소리가 지속을 울리고 있다.

백두전구에 라오르는 총공격전의 불길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성과 계속 확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대공사실적에서 사단적으로 우수한 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들은 인민보안성원들의 제1선전에 선 사령관과 본부

철도전기화공사

철도선로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해산-삼지연철도건설의 돌격구인 작업배우 부설공사를 끝내며 이어 철도전기화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림체적으로 추진

을 잘하고 기계수단배치도 합리적으로 하여 공사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백수십t의 강철구조물 제작 및 조립

덩치가 큰 위연철연역사건설을 맡은 남포시연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련대에서는 철도전기화공사를 힘있게 추진하면서 철길교착공조와 자갈다짐작업도 립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의 기술능력을 한계한 높이는 데 힘을 넣으면서 작업시작전에 하무통안 지켜야 할 공법상요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련대의 전투원들은 공사를 함께 맡은 수도건설위원회돌격대원들과 서로의 창조적힘을 합쳐서 집단적정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계통공사 결속, 시운전 활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가장 땀뻘스럽고 용감한 장재인 미제를 자립의 후피까지로 쳐갈기게 해준다는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계통공사를 끝낸 기세로 총시운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수백대의 설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공정은 전례와 중반, 류량계측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실시간감시 및 조종되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주요결구부를 비롯한 가성소다 생산설비들의 시운전과 보수작업이 세차게 나열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황해남도의 비가울건이전투장터에서 원수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나열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비가울건이성과 계속 확대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황해남도의 비가울건이전투장터에서 원수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나열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가울건이전투장터에서 원수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나열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단단의 준비를 갖추어 갖출 때 그 리용성을 높여 편익성과 확대해나가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들 본격적으로 대가를 만든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끌어번지는 원수격멸의 기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한주일동안 100여만명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원

전업농은 우리 공화국을 《한 전업농》이 세워졌다는 말만을 꺼리던 것이 이제부터는 시시각각 혁명적 불꽃을 피우고 있는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전국의 농근근로자들이 조국수호, 혁명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서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갈 나날의 농근근로자들의 헌신과 보복의 발원지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농근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성명에 접하자마자 모임을 열고 《시퍼런 낮으로 농의 역군을 단숨에 쳐버리자!》, 《불망나니서종자들이 벌레처럼 서식하고있는 미국당영어를 총포로 쏘아죽자!》고 웨치면서 전략의 무리들을 가져다 붙여버릴 멸망의 기세로 높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단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성명이 발표된 이후 3일 동안에 사려원시 미군협동농장, 신계군 화성협동농장의 농근근로자들은 비롯한 10만명의 농근근로자들은 100여만명의 농근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단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석탄생산에서 혁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한주일동안 100여만명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한주일동안 100여만명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원

석탄생산에서 혁신 2.8직동, 권선청년단, 령대단들의 준비를 갖추어 갖출 때 그 리용성을 높여 편익성과 확대해나가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2.8직동, 권선청년단, 령대단들의 준비를 갖추어 갖출 때 그 리용성을 높여 편익성과 확대해나가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2.8직동, 권선청년단, 령대단들의 준비를 갖추어 갖출 때 그 리용성을 높여 편익성과 확대해나가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나라와 난관을 맞아 싸우는 데 가장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두의 불꽃처럼 백두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있게 추동하자

단위의 발전 잠재력을 높인 비결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어랑군에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읍지구의 인보

실력과 인재를 보는 눈

올해 2월 군에서는 학생소년 회관을 개관할 목표를 세웠다. 자체와 자금도 긴장하였지만 선 차적으로 결연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군들은 저지마다 평야에 있는 설계기관들의 방조를 받자고 하였다. 회관을 내놓고 자랑 할만 하게 일떠세우자면 용당 그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군당위원장 김철호동무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군에 형성안을 만들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우기 무슨 일이 제기되면 우만 쳐다보곤 하는 일군들의 판정이 문제였다.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르면 신비하지만 알고보면 신비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다. 그는 회관형성안을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그릇된 판정을 바로잡아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군체신소로동자인 최동무가 선발되게 되었다.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를 일신하고 현대적인 양어기지를 일떠세웠다. 주민들의 열 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자체의 세면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결실을 내었다.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중략) ...

농장원도 새 제품개발자로

인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떠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초 군에서는 어대진형 동종의 한 농장원이 발기한 중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중략) ...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중략) ...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어랑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지나던 3월 양덕군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야 하고 과학기술보급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양덕군 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야 하고 과학기술보급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이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야 하고 과학기술보급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이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야 하고 과학기술보급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과 학 기 술 보 급 실 을 잘 꾸 러 놓 고... (중략) ...



풍등관 현지 학습반 운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촬영)

풍등관 현지 학습반 운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촬영)



풍등관 현지 학습반 운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촬영)

풍등관 현지 학습반 운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촬영)

깊은 삶은 실천속에서 빛난다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깊은 삶은 실천속에서 빛난다... (중략) ...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중략) ...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중략) ...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중략) ...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중략) ...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대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서...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학습반을 운영하며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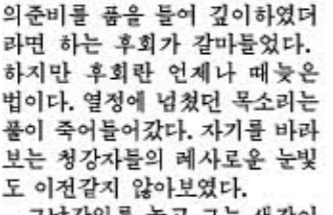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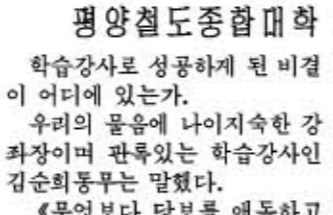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중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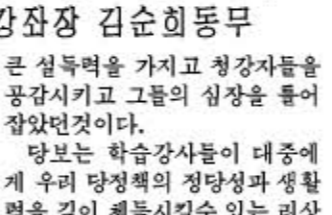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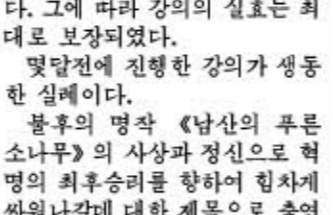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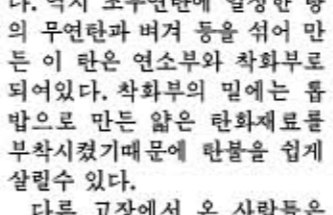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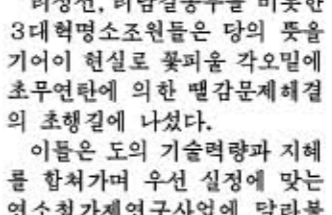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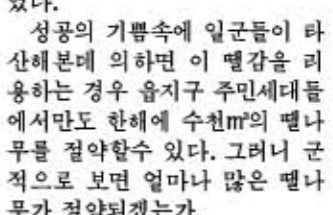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개천관 쉼터에 힘을 넣어... (중략) ...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

미국산 미친개들의 가증스러운 추태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로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경계로 치닫되고 있는 속에 남조선내부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고있다.

피뢰당국자들과 여당세력은 물론 보수 야당계리들속에서조차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소리를 터져나오고있다. 피뢰인론들과 전문가들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서울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군사적방안은 없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한편 인터넷에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 《10월은 위기의 달이다.》 등의 글들이 연이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에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미국방성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남조선에 행각하여 미국인소개작전을 집결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전쟁공포증이 만연되고있다.

남조선내부에 전쟁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트럼프패거리들은 《북핵폐기》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어떻게 하나 핵질거란적인 야망밑에 《최대의 압박과 권위》라는 포악무도한 대조선정책을 내걸고 사상 유례없는 반공화국제와 군사적도발행동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살상정책은 오히려 우리를 핵억제력강화의 길로 더욱 떠밀어 전방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억제력을 백무노로 강화하여오는 것은 어떤 핵정책자들도 외적으로 격렬소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될지언정, 트럼프패거리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과산의 운명을 처하고 우리를 해치려던 미치광이들의 지발발광

은 오히려 제논으로 제논을 찌르는 격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무슨 《군사적대응안》이라는것을 꺼내놓고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리성을 잃고 허덕이고있다. 미국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우두머리들은 《이제는 군사적대응이 불가피하다.》,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국방장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고이대고있다. 미 국방장관 마티스는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선택안》을 가지고있다고 허세를 부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완전과격》에 처할려는 군사적선택안이다. 트럼프의 폭언은 바로 이런 속에 튀어나왔다. 최근 미국이 핵전략폭격기(B-1B) 편대를 조선반도상공에 쾀러낸 들이었고 있는것도 단순한 군사적위협이 아니다.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해오다가 제 무덤만 판 꼴이 된 트럼프패당이 급해맞은 나머지 무슨 께기를 부리지 말수 없다. 량도도 크지 않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이 당하게 될 피해는 실로 엄청날것이다. 《전쟁이 나더러는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것》이라는 끔찍한 발언도 서슴없이 들이치는 미치광이 트럼프가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을 안중에 돌리 만무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이 땅은 미국의 전쟁장비터가 아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용납할수 없다.》는 분노의 천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 핵전쟁의 재난을 서슴없이 들이치는 트럼프패거리들의 위협천만만 방풍에 대한 옹당한 단면이다.

남조선내부에 극도의 전쟁공포증이 만연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핵

전쟁도발행동에 대한 괴피집진세력의 맹목적인 추종이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완전과격》폭언으로 우리 공화국에 로물적인 선전포고를 한 미국의 전쟁경계를 준엄히 단죄규탄하면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은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리성을 잃고 허덕이고있다. 미국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우두머리들은 《이제는 군사적대응이 불가피하다.》,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국방장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고이대고있다. 미 국방장관 마티스는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선택안》을 가지고있다고 허세를 부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완전과격》에 처할려는 군사적선택안이다. 트럼프의 폭언은 바로 이런 속에 튀어나왔다. 최근 미국이 핵전략폭격기(B-1B) 편대를 조선반도상공에 쾀러낸 들이었고 있는것도 단순한 군사적위협이 아니다.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해오다가 제 무덤만 판 꼴이 된 트럼프패당이 급해맞은 나머지 무슨 께기를 부리지 말수 없다. 량도도 크지 않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이 당하게 될 피해는 실로 엄청날것이다. 《전쟁이 나더러는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것》이라는 끔찍한 발언도 서슴없이 들이치는 미치광이 트럼프가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을 안중에 돌리 만무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이 땅은 미국의 전쟁장비터가 아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용납할수 없다.》는 분노의 천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 핵전쟁의 재난을 서슴없이 들이치는 미치광이 트럼프패거리들의 위협천만만 방풍에 대한 옹당한 단면이다.

남조선내부에 극도의 전쟁공포증이 만연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핵

와 《통일의교안보임의 쇄신》 등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현 당국과 집권여당을 《안보불안세력》으로 몰아대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보수패거리들은 미국에 찾아가 전술핵무기제체를 구걸했는가 하면 이 당 대표라자는 《독자적인 핵개발》방향을 쫓았다. 보수패거리들이 《북핵회담》을 구실로 《안보위협》을 그 어느때보다도 거세하고있는데는 전 집권세력을 동족대결일변도정책에 계속 비호해놓고 미국의 반공화국살상행동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격상태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을 가려주고 보수의 세집결로 권력야욕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속내가 깔려있다.

동족을 해치고 더러운 전쟁을 부지하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미국의 핵전쟁제를 만드는 반민족적행위도 서슴치 않는 피뢰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쫓아버려야 할 추악한 미국반역의 무리이다. 력사의 무덤속에서 기어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보수적패당을 철저히 배양하지 않으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보수성실운동자 정철수후보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북침핵전쟁도발행동에 환장한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배극적세력들 그대도 두터운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전쟁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미반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핵전쟁도발행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요즘 미국상선단 쳐다보며 제 처지도 모르고 분주히 들거꾸는 남조선피뢰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도발을 걸었다. 우리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미국의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단죄하면서 현 현실을 약박하게 걸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패거리들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협박》하고 《평화를 위협》하였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나중에는 《사과》해야 한다는 너두리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것들은 우리 외무상이 자위적억제력보유를 정당성으로 주장한데 대해 《역지와 생트집》,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힐문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미구 내뱉었다.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과격》에 대해 제책냈다는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었고,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과 고위장들을, 외신들과 견문가들 지어 미국내에서조차 《유엔을 전쟁위협무대로 만든 것》, 《가장 흉악한 연설》, 《불행행》, 《미치광이》, 《공유병환자》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들이 물방으로 터져나오고있다.

사실상 트럼프는 말쑥한이 아니라 핵폭탄에 맞서 싸울수 할 소리가 없게 되어있다. 이런 늙다라미치광이의 뉘나 썩어주며 그의 과수군노릇을 하는 피뢰들이 참으로 풀사남기 그지없다. 피뢰들이 우리 외무상의 연설과 관련하여 그 무슨 《협박》과 《위협》에 대해 떠들었는데 입은 베풀어주도 주라는 바로 불어아 한다.

상식과 정서가 온전치 못한데로부어 상대도 가늠하지 못하고 말꼬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미국의 핵탄추를 쥐고있는것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당당한 주권국가에 대해 《협박과 분노》, 《완전과격》폭언을 서슴치 않는 이것은 바로 불어아 한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행동에 대처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미반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핵전쟁도발행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날로 엄중해지는 북침핵전쟁도발행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자위적수단으로서 핵을 보유하였다.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공갈행동을 골장내기 위한 전쟁억제력이며 최종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정형이 살판치고 국제적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옹합은 힘으로 맞서야 하며 특제의 핵은 정의의 핵까지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 현실이 보여주는 첩리이다.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비성히 강화해오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핵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우리의 핵억제력을 약으로 쳐서 비방하고있는것은 저들이 친시대파종으로 눈이 멀어 객관적인 현실도 바로 보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는것이다.

민족의 머리우에 핵세탄을 몰아오는 트럼프의 방패에 대해 극구 찬양하며 발라맞추던 피뢰들이 상선의 망풍에 응당한 타격을 가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에 놀라 입에서 구멍이 나가는지 뺨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미친듯이 해담하는것은 그야말로 친시대파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트럼프의 미친 폭언에 직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갈지 않은 피뢰나부영들이 대결관용을 부리며 잔망스럽게 놀아대는것은 제 죽을지도 모르고 불어아 하는 무나비의 꼴을 방불케 한다.

남조선피뢰들이 지금처럼 트럼프가 붙어있는 전쟁공포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는 상성과 같이 핵폭탄을 들쓰는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피뢰들은 미국에 대해 핵억제력이 남았다는 자질을 앞당기게 뿔뿔이러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와 같은 전쟁불망나니들뿐 아니라 피뢰정체를 들고있는 온갖 반역적세력들을 미국산 미친개들의 죄악도 반드시 걸살잡아야 한다.

허영민

트럼프의 망발을 견결히 단죄규탄

총련중앙, 중앙단체, 사업체, 간도지방 일군들의 집회 진행

총련중앙, 중앙단체, 사업체, 간도지방 일군들이 9월 28일 총련중앙위원회에서 우리 국가를 《완전과격》하였다는 망발을 내뱉은 미국의 늙다라미치광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경사송위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총련조직을 끝까지 지켜내자!》, 《트럼프놈의 용납 못할 견대미분의 무지막한 미치광이망발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뉘어있었다.

집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백익주부의장, 배진주부의장, 장사부총장, 오민학부의장, 김경제총장, 강주련부의장, 김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김영호 총련지비부 부위원장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성명서는 포악무도한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하고 준엄한 파벌의 선고장이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라는

구호 소상, 간도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 총련중앙일군들과 중앙단체, 사업체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서를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판독하였다.

집회에서는 남승우부의장, 강주련부의장, 김경제총장, 오민학부의장, 김경제총장, 강주련부의장, 김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김영호 총련지비부 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성명서는 포악무도한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하고 준엄한 파벌의 선고장이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라는

투쟁 전개

집회에서는 김현일 제일본조선 류학동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총련지비부 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성명서는 포악무도한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하고 준엄한 파벌의 선고장이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라는

우리 민족을 멸살시려고 날뛰는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세계연전에서 우리 민족의 절멸을 꾀는 늙다라미치광이를 지구상에서 세도 없이 소탕해버릴 만민군인의 피성령을 존비배산한 트럼프와 그 패당이 더욱 분발하고 단죄규탄한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트럼프는 대조선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여전히 허비단이 들어가는대로 《북이 오래가지 못할것이다.》, 《군사적방안은 대단히 과격적》, 《전일자들이 망쳐놓은 북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뻔뻔한 나발을 연일 쫓아대고 있다.

미국의 발판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총확장에도 향한 우리 민족의 힘찬 전진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게 된 때에 감과 수지감, 무력감의 발모이 없 비극적정판의 시각이 분분초초 막두해고있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의 무부담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야말로 정당한 사교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미치광이국가, 피뢰와 살륙

민족화해 협의회 대변인 담화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행동에 대처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미반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핵전쟁도발행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재일조선청년학생항의단

제일조선청년학생항의단이 9월 27일 트럼프가 유엔 부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의 《완전과격》이라는 망언을 제책냈것과 관련하여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렸다.

항의단 성원들은 일본경찰이 장갑차들과 무장경찰들을 내몰아 대사관으로 뚫힌 길을 가로막자 분산행동으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사관앞까지 진출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의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망발을 단죄규탄

투쟁 전개

제일조선청년학생항의단(류학동)의 주최로 《우리 학교 지지자! 전 학생학생들!》가 지되었다.

행동시와 관련한 집회가 9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김현일 제일본조선 류학동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총련지비부 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성명서는 포악무도한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하고 준엄한 파벌의 선고장이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라는

민족교육사수를 위한 투쟁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행동에 대처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미반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핵전쟁도발행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파연 자주적인 나라를 철통을 자각이 있는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로스도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구적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로씨야-아르한젤스쿠 주체사상 및 선군적연구회들은 유엔부대에서 한 트럼프의 악의에 찬 망발을 미국의 침략전쟁을 포악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반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이었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류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완전과격》하였다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미군의 발진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반드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러나 조선이 다져온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